

신희준 루도비코 신부 | 양천성당 주임 겸 제18양천지구장

## | 비움의 부활 체험

‘부활’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잠깐 눈 감고 떠오르는 것들이 뭔지 보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봄, 병아리, 부활달걀, 토끼, 개나리, 노란색, 부활초 등 뭔가 활기차고 생기가 넘치고 짝 차 있는 이미지들이 눈에 선합니다.

왠지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 근처에 갔을 때 무덤 문을 박차고 예수님이 ‘짜자~ㄴ’ 하고 위풍당당하게 등장해서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 부활 이미지! 음?! 그건 아무래도 슈퍼맨의 이미지 아니냐고요? 그리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진심을 털어놓자면, 마리아 막달레나와 베드로와 요한이 체험한 ‘부활 체험’, 곧 ‘빈 무덤 체험’은 저에게는 어쩐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영광으로 짝 차고 넘쳐야 할 ‘부활 체험’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텅 비어 있는 모습에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빈 무덤을 보고 곧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는 사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달려간 마리아 막달레나, 또 빈 무덤을 들여다보고는 즉시 주님의 부활을 믿은 요한과 베드로! 이들은 과연 빈 무덤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본 것을 저는 왜 보지 못하고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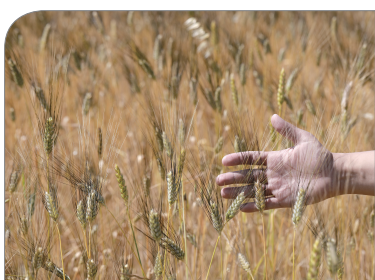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문득 이번 사순 시기의 첫날인 재

의 수요일 복음 말씀이 떠오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마태 6,1) 그러면서 자선, 기도 및 단식에 힘써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남들한테 드러나지 않게 자선이나 기도나 단식을 실천하자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면서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단식에 대해서 성찰해 보자면, 이삭야 예언자의 말씀이 참으로 유익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불의한 결박을 풀어 주고, ... 네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네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이사 58장 참조) 단식은 단순히 굶는 데에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내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나아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기도를 해야 하는데,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이나 집착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이 보일 리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빈 무덤’은 온갖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비워진 우리의 내면을 나타냅니다. 부디 이번 부활절에는 마리아 막달레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온갖 욕심과 집착들로부터 해방된 우리 ‘빈 무덤’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골로 3,4)**

밀이 영글면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추수를 앞둔 밀밭을 보며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김문숙 요셉파나 | 가톨릭사진가회

